

2016년 예산
보도참고자료

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설명자료

2015. 12

특 허 청

목 차

1. 상표조사분석	1
2. 디자인조사분석	2
3. 국내 특허문헌 CPC 재분류	3
4.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	4
5.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	5
6.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	6
7.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 중국 추가 설치	7
8. 정부 R&D특허설계 지원	8
9.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	9
10. 민간 IP-R&D 전략 지원	10
11. 특허거래전문관 지원	11
12. 대학 · 공공연 특허기술 이전 지원	12
13.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	13

(상표심사정책과, 이형백 사무관, 042-481-8343)

□ 추진배경

- 상표는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되므로 기업의 안정적인 브랜드 경영지원을 위해 신속·정확한 권리화 지원 필요
- 매년 증가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 제공 필요

□ 주요내용

- 심사에 필요한 선행상표 검색 등 조사분석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*에 용역을 통해 상표심사업무 지원
 - 선행상표 검색 등 검색 결과와 대비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상표 조사분석 보고서 납품

* 상표조사분석 전문기관(4개) : (주)윙스, (재)특허정보진흥센터, 나라아이넷(주), (주)케이티지

□ 소요예산 : ('15) 3,739 → ('16) 4,573백만원 (증 834백만원, 22.3%)

- (처리건수) '16년 국내·국제상표 예상 출원의 45%물량* 을 상표 조사분석 전문기관에 선행상표 조사·분석 의뢰

* 95,474건 X 47,896원 = 4,573 백만원

□ 기대효과

- 출원인이 원하는 적정 심사처리기간(5개월)을 유지 관리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
-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등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를 통해 상표 심사품질 향상 도모

(디자인심사정책과, 정부용 사무관, 042-481-8203)

□ 추진배경

- 신속·정확한 디자인 심사처리*에 대한 디자인 업계 요구
 -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하여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
 - * ('11) 10.0개월 → ('12) 8.8개월 → ('13) 7.3개월 → ('14) 6.3개월 → ('15) 5.0개월
- 디자인 출원량 증가를 고려한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필요
 - 삼성과 애플의 분쟁 이후 디자인권의 중요성 부각,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출원량 증가 추세

□ 주요내용

- 디자인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검색 및 등록요건 판단 등 기초적인 법리검토를 수행하여 심사업무 지원
 - 국내·해외 디자인공보, 인터넷·카탈로그 등 공지디자인을 검색한 후, 검색결과와 대비한 등록가능성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 납품

□ 소요예산 : ('15) 2,240 → ('16) 2,540백만원 (증 300백만원, 13.4%)

- (처리건수) '16년 국내·국제디자인 예상 출원의 35.5%* 물량을 디자인 전문기관**에 선행디자인 조사·분석 의뢰

* 27,101건 X 93,730원/건 = 2,540 백만원

** (주)웍스, (재)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, 나라아이넷(주), (주)케이티지 (총 4개)

□ 기대효과

- 적정 심사처리기간(5.0개월)을 유지하여 출원인 만족도 제고
 - 디자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초 의견제출통지서를 5개월 이내 발송 목표
-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 도모
 - 주요 선진국 대비 심사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,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디자인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국제적 심사품질 확보

(특허심사기획과, 조기윤 사무관, 042-481-5655)

□ 추진배경

- 관련기술에 대한 정확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및 노하우가 필요하므로, 일반인이 검색을 수행하기가 어려움
- 일반인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류검색이며, 이를 위해 미국·유럽 등 세계 45개 주요국은 선진특허분류(CPC)를 도입

□ 주요내용

- (CPC 재분류) 일반인도 관련기술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록, 국내 과거 특허문헌에 CPC를 부여하는 사업
- 검색할 때 정확한 CPC 분류만 입력하면, 관련기술에 대한 필수문헌을 누구라도 손쉽게 검색 가능

□ 소요예산 : ('15) 810 → ('16) 3,510백만원 (증 2,700백만원, 333.3%)

- (처리건수) 선행기술검색에 활용도가 높은 최근 10년 국내 과거 특허문헌 130.8만건 중 '16년에 39만건의 CPC 재분류를 수행
 - * 390,000 건 X 9,000원/건 = 3,510 백만원
- '18년까지 최근 10년 출원건 130.8만건의 CPC 재분류 완료 예정

□ 기대효과

- 일반인도 기존 관련기술에 대한 손쉬운 검색이 가능하여,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특허성 있는 독자적 기술 개발 가능
-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인의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 가능
- 더불어, 외국에서 국내출원과 유사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방지
- 외국에서도 CPC를 이용한 국내문헌 검색이 가능하여, 외국에서 국내 기술과 유사한 특허의 등록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특허분쟁 예방
- * 해외 심사관의 경우 국내문헌의 검색을 위해 특허분류를 주로 이용

(산업재산보호지원과, 문은정 사무관, 042-481-5992)

□ 추진배경

-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국제 지재권 분쟁*이 증가하여 컨설팅을 통해 지재권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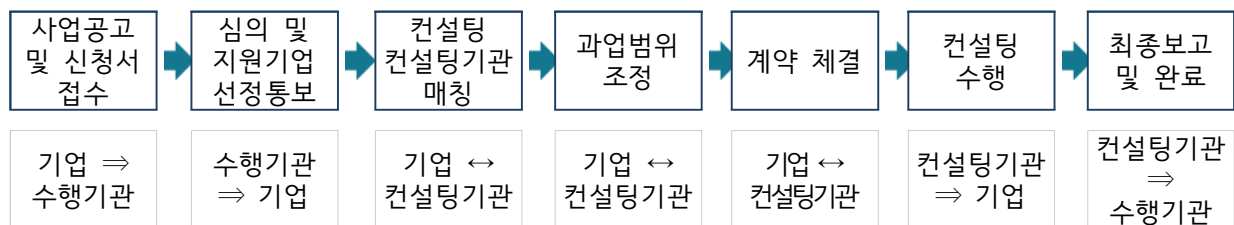
*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 건수 : ('12) 224 → ('13) 342 → ('14) 300 → ('15.9) 191

□ 주요내용

- 해외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가능성 분석, 경고장 대응, 특허 라이선스 협상 등 분쟁단계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제공

* 총 컨설팅 비용의 70%(중소기준, 중견 50%)를 지원하되 최대 28백만원 지원

<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절차 >



□ 소요예산 : ('15) 6,800 → ('16) 9,020백만원 (증 2,220백만원, 32.6%)

- ('15)6,800(중소 200개社×40백만원×70% + 중견 60개社×40백만원×50%) → ('16)9,020백만원(중소 265개社×40백만원×70% + 중견 80개社×40백만원×50%)

□ 기대효과

-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컨설팅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및 수출 확대 기대

* 분쟁 예방컨설팅 지원기업의 37%가 해외 수출 중 41%가 수출준비 중, 분쟁 대응컨설팅 지원기업 중 약 52%가 분쟁종결 ('14년 지원기업 사후추적결과)

- 수출 유관기관, 기업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확산 및 인식제고

-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연계, 홍보협력 등

(산업재산보호지원과, 문은정 사무관, 042-481-5992)

□ 추진배경

-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지재권 분쟁사례가 증가*하여 소송보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분쟁비용 부담경감 및 대응력 강화 필요

* 美 지재권침해 압류건수 18% 증가('10년~'14년), 中 지재권침해 화물 76백만건 압수('1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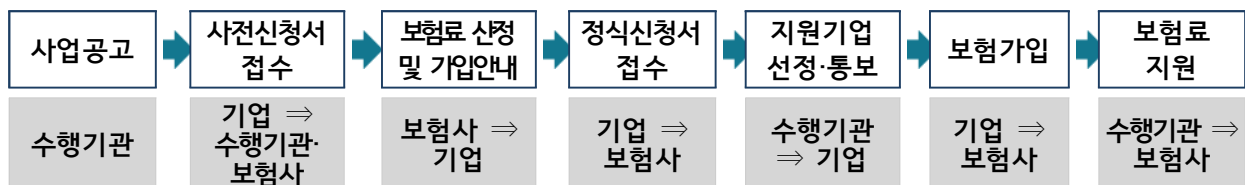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

- 중소·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료 일부 지원

* (운영구조) 특허청(총괄), 사업수행기관(사업수행), 민간보험사(보험운영)

구분	내용
보장 권리	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
보장내용	권리행사(소제기) 및 권리보호 및 피소 대응에 소요되는 법률비용
지원비율	보험상품별·기업규모별 80%~50%

<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운영 절차 >



□ 소요예산 : ('15) 1,240 → ('16) 2,080백만원 (증 840백만원, 67.7%)

- ('15)1,240(중소 60개社×20백만원×70% + 중견 40개社×20백만원×50%)→ ('16)2,080백만원(중소 120개社×20백만원×70% + 중견 40개社×20백만원×50%)

□ 기대효과

- 소송보험을 활용하여 지재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 등 적극적 대응 및 분쟁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기업 운영에 기여

* '10~'14년 지원기업 설문결과 소송보험 가입을 통해 기업 경영 안정화에 도움 82.1%,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도움 67.9% ('14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)

- 단체가입형 보험상품 지원*, 기술별·업종별 맞춤형 단체보험 개발 추진 등으로 상품다양화에 대한 기업수요 충족

* 중국 진출(예정) 중소기업을 위한 소송보험 지원 확대 추진('16) 등

(산업재산보호지원과, 이원재 서기관, 042-481-3573)

□ 추진배경

-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화장품·식품·의류 등 국민 생활·건강과 밀접한 소비재 중심으로 지재권 피침해가 확대되는 양상

* 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중 음식료·의류 업종 등이 약 40% <'15 해외 지재권분쟁 실태조사>

-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모조품 대량 유통 및 프랜차이즈 상표 무단 선점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

* (피해사례) 한국의 유명 디저트업체 S社, 치킨업체 T社 등의 유사상표 선 등록 및 점원 복장·인테리어까지 모방한 점포 성행 <'15.8. MBC 시사매거진 2580 >

- 이러한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인 예방·대응을 위해서 국내 인프라 구축 등 K-브랜드 보호 지원 강화 필요

□ 주요내용

- (산업단체 연계 지원) K-브랜드 보호 지원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및 주요 피해 산업단체와 연계하여 지재권 분쟁 예방·대응 지원
- (예방·대응체계 마련) 해외 상표 브로커 및 온라인 모조품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에게 알림 서비스 제공 및 대응 지원

□ 소요예산 : ('15) - → ('16) 500백만원 (순증)

* 상표 브로커 및 온라인 모조품 모니터링 및 산업단체 연계 지원 등

□ 기대효과

-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사전 예방 기능 강화로 우리 기업 보호 및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기여

(산업재산보호지원과, 이원재 서기관, 042-481-3573)

□ 추진배경

-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*하고 있으나, 중국 내 IP-DESK가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, 서부지역 지원에 한계

* 중국 IP-DESK(북경·상해·청도·광주·심양) IP 상담(건) : ('10) 1,165건→('14) 2,834건(약 2.4배 증가)

- 중국 산시성 '시안'은 최근 전자·건축·통신 등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*하고 있으며, 서삼각 경제권**의 중심지로 내륙발전의 동력으로 급부상 중

* 삼성전자는 시안 반도체공장에 70억 달러의 사상 최대규모의 투자를 추진('12~'14)

** 시안·청두·충칭을 중심으로 내륙 인프라 확충 후 실크로드 벨트 연결 등 新실크로드 정책 추진 중

- 향후 FTA에 따른 무역 규모 확대 등으로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□ 주요내용

- 모조품 유통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중국에 IP-DESK 추가 신설

-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적 요충지인 '시안'에 IP-DESK를 신규 설치하여 현지 진출이 활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종합지원 강화

* 중국 IP-DESK : ('15) 5개소(북경·상해·청도·광주·심양) → ('16) 6개소 (시안 추가)

□ 소요예산 : ('15) 2,529백만원 → ('16) 2,760백만원 (증 231백만원, 9.1%)

* 중국 시안 IP-DESK 신규 설치 및 운영비용(인건비, 직접비, 간접비)

□ 기대효과

- 중국 진출(예정) 기업의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 강화를 통한 중국 진출 활성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

(산업재산창출전략팀, 복상문 사무관, 042-481-5931)

□ 추진배경

- 정부 R&D의 실적용 특허 양산*과 특허성과의 낮은 질적 수준은 기술이전·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고질적 미활용특허** 문제 초래

* 공공기관 발명신고건 대비 특허출원 현황('13년): 한국 92%, 미국 61%, 유럽 48%

** 특허활용(사업화)률('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): 대학·공공연 32.1%, 기업 63.4%

- 미활용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·공공연이 활용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토록 지원 필요

□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연구개발 완료 단계인 대학·출연연의 연구실, 정부 R&D 사업단, 중대형의 R&D 과제로서 특허관련도가 높은 과제

* 특허창출·활용 관련 성과목표 설정 현황, 특허분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

- (지원내용) 정부 R&D로 개발된 기술을 권리성·기술성·시장성을 종합평가하여 출원대상을 선별하고, 우수기술은 전략적으로 권리화* 지원

* 권리범위·특허포트폴리오 설계, 출원전략, 심사전략 수립 후 필요시 해외출원까지 지원

- (추진체계) 특허전문위원*과 변리사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자를 밀착 지원하고, 필요시 기술·시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

* 연구자-변리사와 협력하여 이견 조정, 전략방향 설정 등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

□ 소요예산 : ('15) - → ('16) 2,240백만원 (순증)

- 중대형 R&D과제·사업단·연구실 56개 이상 지원 예정

□ 기대효과

- 정부 R&D 성과를 원천·핵심특허로 확보하여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, 장기적으로 기술이전·사업화 시 성과 극대화

(산업재산창출전략팀, 복상문 사무관, 042-481-5931)

□ 추진배경

- 대학·공공연은 연구실적·성과평가만을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* 하여 미활용특허 비중이 높고**, 특허유지 부담도 가중

* 연도별 정부 R&D 등록특허의 유지 비율(특허청, %, '15.2월)

등록연차		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	5년차	6년차	7년차	8년차
존속비율	대학	100.0	100.0	100.0	97.5	94.7	85.3	77.5	72.4
	공공연	100.0	100.0	100.0	93.5	87.3	78.6	66.1	53.9
민간 R&D		100.0	99.9	99.8	86.2	77.4	70.5	64.4	59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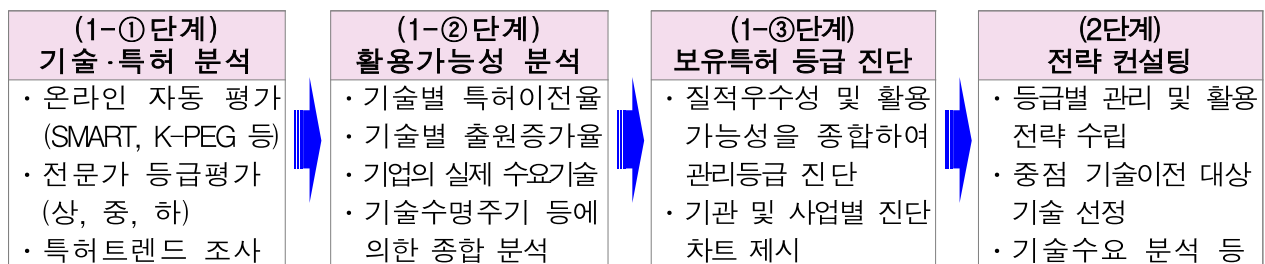
** 특허활용(사업화)률('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) 대학·공공연 32.1%, 기업 63.4%

- 등록특허 유지·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·절차·방법이 부재
⇒ 특허등록 후 체계적인 특허관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 추진 필요

□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정부 R&D 특허성으로 등록 후 5년간 미활용된 특허
- (지원내용) 지표·특허 분석으로 해당기관의 개별특허를 진단(1단계) 하고, 기관·사업 차원의 전체 특허관리·활용 전략(2단계)을 수립

<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프로세스 >



□ 소요예산 : ('15) - → ('16) 400백만원 (순증)

- 미활용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학·출연연 10개 기관 이상 지원

□ 기대효과

- 불필요한 특허관리 비용 소모는 최소화 하면서 미래시장을 선점할 중요 권리는 확보하는 전략적 특허관리가 가능

(산업재산창출전략팀, 박성우 서기관, 042-481-818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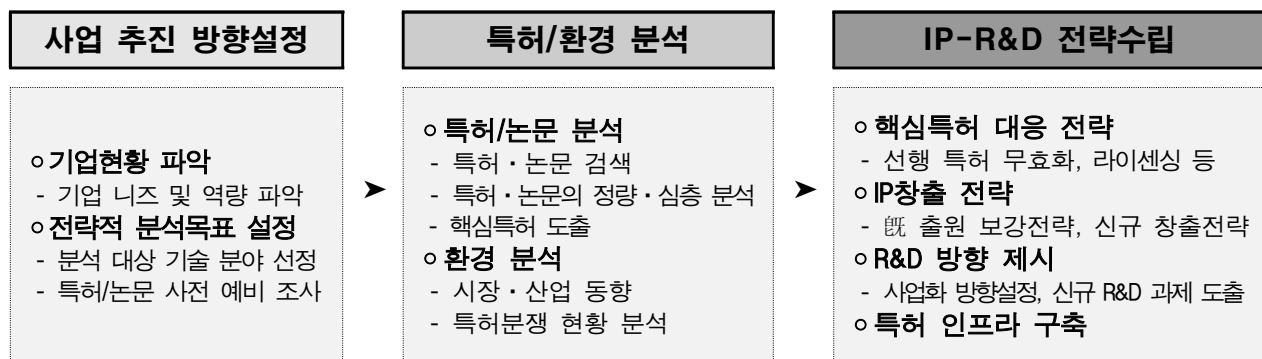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- 기업이 기술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재권 관점에서의 연구개발(IP-R&D) 전략 수립 지원 필요

□ 주요내용

- (지원내용) IP 관점에서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전략 수립
 - 기업 R&D 현장에 주관기관 특허 전문위원,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지재권 전략전문가팀을 파견하여 맞춤형·밀착형 전략 수립 지원

< IP-R&D 전략 지원 프로세스 >



- (지원절차) 사업공고 → 참여신청서 접수 → 서류평가 및 현장방문 → 참여기업 선정 → 협력기관(특허분석 전문기관) 선정 → 계약체결
- * IP-R&D 사업관리시스템(ippro.kipsi.re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
□ 소요예산 : ('15) 12,430 → ('16) 16,280백만원 (증 3,850백만원, 31.0%)

- R&D를 수행하는 중소·중견기업 198개 이상 지원

□ 기대효과

- 경쟁사 핵심특허 대응 전략 수립, 우수특허(신기술) 창출, 신규 R&D 방향 수립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기대

(산업재산활용과, 이한규 사무관, 042-481-5322)

□ 추진배경

-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 특허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필요

*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시작한 '06년 이후 거래된 지식재산권과 기술료는 953건과 826.4억원이며, 1건당 평균 기술료는 86.7백만원

< 특허거래전문관 거래 실적 > (단위: 건수,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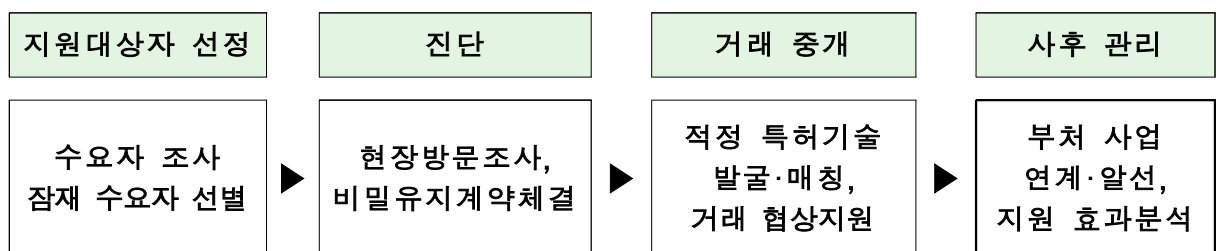
구분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.10	계
지식재산권	34	24	36	71	105	80	150	153	181	119	953
기술료	2.95	13.95	7	59.2	78.3	80	142	104	128	211	826.4

□ 주요내용

-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, 적정 수요·공급 특허기술 매칭, 중개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지원

*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특허거래전문관 연계를 통해 특허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개방특허 매칭, 이전 협상 등 지원

< 특허거래전문관 지원절차 >



□ 소요예산 : ('15) 630 → ('16) 1,190백만원 (증 560백만원, 88.8%)

- (특허거래전문관 증원) ('15) 9명 → ('16) 17명

□ 기대효과

-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거래·이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

대학·공공연 특허기술 이전 지원 사업 개요 (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)

(산업재산활용과, 하성태 사무관, 042-481-5174)

□ 추진배경

- 국내 대학·공공(연)은 그 동안 기관별로 개별적인 기술이전을 추진해 왔으나, 기술 수요자인 기업의 종합적 기술수요에 맞는 제품 단위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역량은 미흡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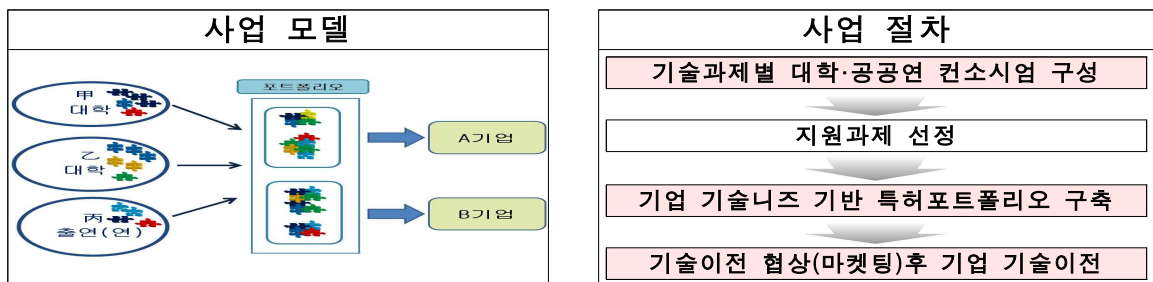
* 기업으로 이전된 대학·공공(연) 특허기술 중 제품생산, 공정개선 등에 사용되어 수익(매출)이 발생한 경우는 15.9% 정도에 불과('14. 산업부)

- 특허기술 공급자인 대학공공(연)이 기술의 융·복합화에 따른 수요 기업에 맞는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

□ 주요내용

- 다수의 대학·공공(연)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품단위 기술별로 특허기술을 패키지화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게 산업계로 이전 지원

<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사업 모델 및 절차 >



- 대학·공공연(기초·응용단계기술)과 기업(개발단계기술)들이 보유한 휴면특허들의 활용 촉진

□ 소요예산 : ('15) 1,000 → ('16) 1,500백만원 (증 5백만원, 50%)

- (지원과제 수 확대) ('15) 10 → ('16) 20개

□ 기대효과

-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건당 평균 기술료는 약 3억원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(산업재산인력과, 안병옥 사무관, 042-481-5183)

□ 추진배경

-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·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

□ 주요내용

- (지원조건)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, 지식재산 정규 교과목 연 6강좌 (18학점)이상 개설, 학교실정에 적합한 지식재산 교육이수체계 개발 및 적용
- (지원규모) 대학당 연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 지원
- (지원현황) 15개 대학 지원 예정
 - 강원대, 인하대, 전남대(1차), 부경대, 서울대(2차), 공주대, 금오공대, 동국대(3차), 경희대, 국민대, 목원대, 안동대(4차), → '16년 3개 대학 추가 예정(5차)
- (지원성과)
 - 전임 위주의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을 통한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 구축 및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
 - * '14년 말 기준 지식재산 강좌수가 선도대학 선정 전후 대비 280% 증가
 - 지역 대학과 기업에 지식재산 특강 등을 통한 지식재산 확산 및 특허컨설팅 등 다양한 산학협력 추진
 -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및 창업을 위한 연구소 및 센터 등 설립
 - * 지식재산 교육센터(인하대), IP R&D센터(국민대), 지식창업교육센터(경희대) 등

□ 소요예산 : ('15) 2,400 → ('16) 3,000백만원 (증 600백만원, 25.0%)

- ('15) 12 → ('16) 15개 대학

□ 기대효과

- 전담교수 채용을 통한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기여